

강원 문화의 이해 영촌맷기 최종보고서

삼척의 두 가지 대표 문화자원 연구:국보 죽서루의 가치와 도계 탄광촌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

문화인류학과 202413003 김진영

목차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II. 본론

3. 죽서루

3-1 죽서루의 역사

3-2 죽서루의 문학적 가치

3-3 죽서루가 만들어낸 삼척시의 문화

4. 탄광촌

4-1 탄광촌 형성으로 인한 삼척시의 발전

4-2 탄광촌이 만들어낸 삼척시의 문화

4-3 탄광 산업의 쇠퇴와 삼척시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

III. 결론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역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의 특산물이 무엇인지 수는 몇 명인지와 같은 정보를 습득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 지역이 품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마주하고 그속에 깃든 장소와 사람을 발견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보고서의 목적인 지역과의 영혼맺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역의 뿌리가 되는 역사와 형성 배경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에 깊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삼척의 유구한 역사와 근현대 탄생 배경을 상징하는 두 가지 장소인 국보 죽서루와 도계 탄광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죽서루는 삼척의 전통과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며 도계 탄광촌은 오늘날 삼척의 도시적 기틀을 마련한 산업화 과정의 핵심적인 공간이다. 이 두 곳은 각각 삼척의 고전적 역사와 근현대 삼척시의 성장과정을 상징하는 장소인 만큼 본 보고서에서는 죽서루와 도계 탄광촌을 중심으로 삼척의 역사적 흐름과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죽서루는 삼척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문화유산이다. 관동팔경 중 유일하게 바다가 아닌 오십천(강)을 끼고 세워진 이 누각은 다른 지역의 해안가 정자들과는 차별화되는 건축적, 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독창적인 건축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남긴 문학적 유산은 그 가치를 더한다. 특히 최근 국보로 승격된 만큼 그 문화재적 위상과 독자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둘째, 도계읍 일대의 탄광촌은 삼척의 근현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 주제이다. 광산 개발은 조용했던 산간 마을에 전국 각지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주거지와 탄광촌만의 독특한 문화를 탄생시켰다. 본 연구는 탄광이라는 특수한 산업 환경이 삼척주민들의 주거지와 일상생활 터전을 어떻게 뒤바꾸어 놓았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폐광된 현재 그 공간은 어떻게 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주민들은 어떠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문헌 및 역사 사료 분석

죽서루: 국가유산청의 국보 지정 관련 조사 보고서 및 학술 자료를 통해 건축적·역사적 가치를 분석한다. 또한, 《관동별곡》을 비롯한 과거의 시문(詩文)과 고지도를 활용하여 죽서루가 지닌 고유한 문학적 위상과 지리적 상징성을 조사한다.

도계 탄광촌: 강원 지역 탄광촌 주민들의 생활사와 주거 환경 변화를 다룬 기존의 지역 연구 논문, 자치단체 발행 자료, 통계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광산 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과 탄광촌 특유의 주거 문화 형성 과정을 조사한다.

2) 미디어 및 신문 기사 분석

시각 자료 분석: 과거 탄광촌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이 담긴 방송 다큐멘터리, 뉴스 보도, 당시의 신문 기사 및 사진 자료를 수집한다.

공간의 변화 분석: 과거의 전성기 모습과 현재 남겨진 폐광촌 사택 마을의 모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탄광촌이 겪어온 공간적 사회적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죽서루의 보존 현황과 탄광촌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II 본론

2023년 12월, 삼척 죽서루는 죽서루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었다. 죽서루가 국보로 승격된 이유는 자연 지형을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고 건축물과 조화시킨 독창적인 건축미와 관동팔경 중 유일하게 강변에 위치한 지형적 희소성, 그리고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이 남긴 문화적 자산이라는 점에 있다. 본론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국보로 승격된 죽서루를 죽서루의 역사 죽서루만의 예술로 증명된 죽서루의 문학적 가치 죽서루가 만들어낸 삼척시의 문화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3. 죽서루

3-1 죽서루의 역사

삼척 죽서루는 고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온 누각이다. 특히 1)2023년 12월, 관동팔경 중 유일하게 국보로 승격되며 그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죽서루의 정확한 창건 연대는 미상이나 12세기 인물인 김극기(金克己)의 시와 1266년 이승휴(李承休)의 『동안거사행록』 기록을 통해 고려 시대에 이미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죽서루는 여말선초의 혼란기때 허물어졌다가 이후 1403년 삼척 부사 김효손에 의해 중건되었으며, 1530년과 1788년 두 차례의 증축을 거쳐 현재의 팔작지붕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2)죽서루는 고려 시대에는 주로 '서루(西樓)'라 불렸으나, 여말선초를 지나며 '죽서루'로 정착되었다.

죽서루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래에는 두가지 설화가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누각 동쪽의 대나무 숲과 '죽장사(竹藏寺)'라는 사찰의 서쪽에 위치하여 죽서루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기생 '죽죽선녀'의 유희소였다는 설화가 향토 사료에 전해진다.

1) 삼척시청 홈페이지 죽서루 안내 (접속 2026.05.02)

2) 디지털삼척문화대전(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접속 2026.05.02)

3-2 죽서루의 문학적 가치

죽서루가 관동팔경 중에서도 으뜸인 관동제일루로 손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빼어난 경치 때문만이 아니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남긴 문학적 자산들이 이곳 죽서루에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죽서루는 오십천이 내려다보이는 웅장한 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 예부터 강원도에 부임한 관리나 유람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였다. 조선 시대 문인이자 삼척부사이기도 하였던 허목(許穆)은 3)미수기언(조선 후기의 문신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의 시문집)의 죽서루기를 통해 “인간 세계가 아닌 듯한 경치는 큰 바다의 풍경과는 아주 다르다”라며 제일계정第一溪亭(시냇가에 있는 정자 중 으뜸)이라는 현판을 직접 써붙였다.

고려 시대 이승휴와 안축을 비롯해 조선 시대의 정철 등 수많은 문장가가 죽서루에 올라 객수를 달래며 시를 지었다. 죽서루를 배경으로 창작된 한시는 1,000편이 넘으며 이 중 일부는 나무판에 새겨져 죽서루 내부에 걸려 있다.



4)죽서루 및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 1715년 삼척 부사 이성조(李聖肇)가 쓴 글씨로 죽서루가 영동 지방에서 가장 뛰어난 누각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제일계정(第一溪亭): 1662년 삼척 부사로 재직하던 조선의 대표 명필 허목(許穆)이 쓴 편액이다. 제일계정第一溪亭(시냇가에 있는 정자 중 으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미수기언 책판 (접속 2026.05.06)
 4)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접속 2026.05.02)
 5) 한국고전번역원 [고전기행] 우뚝 솟은 절벽, 백 척의 누각 - 관동제일루 삼척 죽서루(접속 2026.05.02.)



그림3:해선유희지소(海仙遊戯之所)

출처:디지털삼척문화대전

6)해선유희지소(海仙遊戯之所): 1837년 삼척 부사 이규헌(李奎憲)의 글씨로, '바다의 신선이 노닐며 즐기는 곳'이라는 뜻이다. 죽서루가 동해와 가까워 신선이 내려와 놀 것만 같은 선경(仙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글이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죽서루의 실경을 화폭에 담았다는 사실 역시 죽서루의 예술적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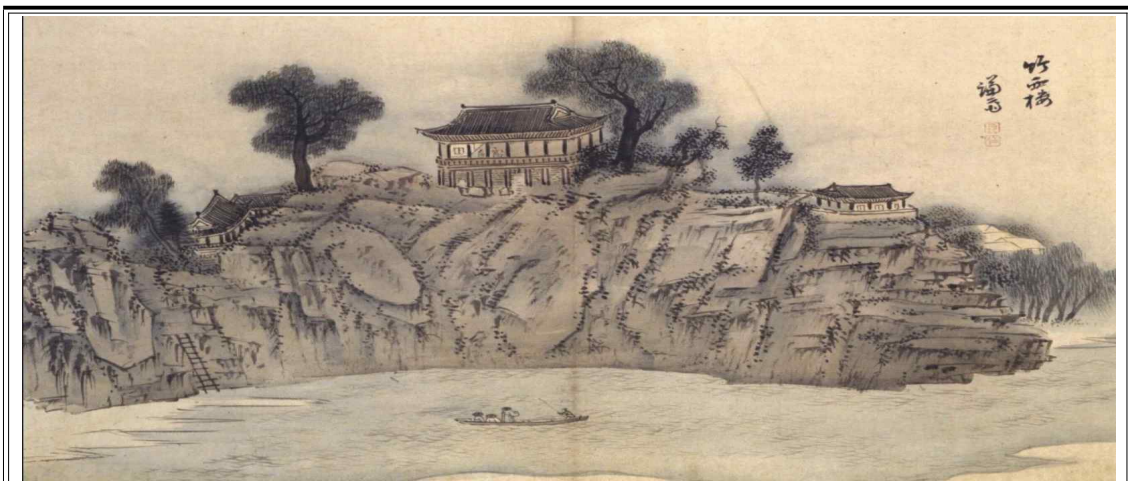


그림4:관동명승첩 중 죽서루 (1738년)

출처:한국대이터진흥원

7)겸재 정선의 『관동명승첩』 (1738년): 정선은 오십천에 배를 띄우고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의 모습을 함께 묘사했다. 이는 죽서루를 단순히 정적인 건축물로 보지 않고, 인간과 자연이 활기차게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포착한 것이다.

6) 디지털삼척문화대전(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접속 2026.05.02)

7) 한국고전번역원[고전기행] 우뚝 솟은 절벽, 백 척의 누각 - 관동제일루 삼척 죽서루(접속 2026.05.02.)



그림5:단원 김홍도 금강사군첩 (1788년)

출처:한국데이터진흥원

8)단원 김홍도의 『금강사군첩』 (1788년): 정조의 어명을 받아 관동팔경을 유람한 김홍도는 죽서루의 웅장한 원경을 사실적인 필치로 담아냈다.

정선과 김홍도가 서로 다른 시선으로 남긴 이 그림들은 죽서루가 조선 시대 전체에서 인정받는 국가적 명승지였음을 뒷받침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과거 죽서루 주변의 지형과 경관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소중한 시각적 기록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로 인해 죽서루는 2023년 국보로 승격되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삼척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죽서루의 역사와 그리고 수백년간 축적된 시인 묵객들의 방대한 기록과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담아낸 화폭들 죽서루를 널리 알리고 지키고자한 삼척시와 주민들의 노력은 국보 지정이라는 결실을 통해 죽서루가 단순한 지역의 명소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연구해야 할 핵심 유산임을 명확히 증명한다.

3-3 죽서루가 만들어낸 삼척시의 문화

죽서루의 역사와 그리고 수백 년간 축적된 시인 묵객들의 방대한 기록과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담아낸 화폭들은 삼척시 주민들에게 자부심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었다.죽서루를 온전히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려 했던 지역 사회의 오랜 염원과 시민들의 노력은 2023년 죽서루의 국보 승격으로 이루어졌다.

8) 한국고전번역원[고전기행] 우뚝 솟은 절벽, 백 척의 누각 - 관동제일루 삼척 죽서루(접속 2026.05.02.)



그림6:삼척 국가유산 야행
출처:삼척관광문화재단

죽서루가 만들어낸 삼척시의 축제인 삼척 국가유산야행은 삼척시의 자부심인 국보 죽서루의 가치를 축제를 통해 알리고 기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죽서루가 만들어낸 삼척시의 문화가 되었다.

이 축제는 삼척의 상징인 죽서루에서 열리는 삼척시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축제를 통해 삼척시와 주민들은 죽서루가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역민과 삼척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그림6:삼척 국가유산 야행
출처:삼척관광문화재단

그림7:삼척 국가유산 야행 행사 사진
출처:삼척시청 블로그

9)죽서루 주변을 조명으로 장식해 공간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빛의 죽서루' 프로그램이나, 앞서 소개했던 죽서루를 방문했던 옛 거장들의 그림을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한 '달빛 풍류','관동 제일의 문화살롱,죽서루' 같은 프로그램들은 관람객들에게 죽서루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소개해 준다.

9) 삼척관광문화재단 홈페이지, [삼척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 소개] (접속 2026.06.11.)



그림8:삼척도호부사 부임행차 행사 사진

출처:삼척시청 블로그

또한 누각 모양의 커다란 야간 조명 아래에서 전통 옷을 입고 취타대의 장단에 맞춰 행진하는 ‘삼척도호부사 부임행차’는 삼척시의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해내는 역할을 한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 동네의 역사를 스스로 보존하려는 삼척 사람들의 고향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있다.

'삼척 국가유산야행'은 죽서루가 삼척 주민들에게 선물한 역사적·문학적 가치 위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해져 만들어진 죽서루가 만들어낸 삼척시만의 문화가 되었다.

이를 통해 삼척시 주민들에게 죽서루라는 공간은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닌, 현대에 와서도 주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며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보여주는 장소임을 보여준다.

4. 탄광촌

이번 장에서 다룰 도계 탄광촌은 척박한 지형과 지하 막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피땀으로 삼척의 근현대 경제를 일으킨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이제 삼척 주민들의 주거지와 일상생활 터전을 획기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던 도계 탄광촌의 형성 과정과 특수한 산업 환경이 낳은 고유의 문화, 그리고 폐광 이후 그곳에 남겨진 주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1탄광촌 형성으로 인한 삼척시의 발전

10)1936년 도계 광업소가 개광하면서 산 깊은 오지였던 삼척시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자원을 실어 나르기 위한 대규모 기반 시설이 들어서며 근대적 도시로서의 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11)1937년 5월, 도계역에서 묵호항까지 이어지는 42km의 삼척선 철도가 개통되었다.

10) 대한석탄공사 홈페이지, 「광업소 소개 (장성·도계광업소)」 (접속 2026.05.04)

11) [굽이굽이 별천지] © 철길과 흥망성쇠 함께 한 탄광촌 삼척 도계(도계 탄광촌 관련 기사) (접속 2026.05.06)

이는 단순히 석탄을 운송하는 수단을 넘어 험준한 태백준령에 막혀 있던 삼척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후 1973년 태백선까지 완전 개통되면서 삼척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탄광 산업의 물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탄광 개발은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이어졌다. 1935년 약 8만 8천 명이던 삼척의 인구는 1940년 약 12만 5천 명으로 불과 5년 만에 1.5배나 급증했다. 또한 1940년 전 교생 73명으로 개교했던 도계초등학교는 탄광 산업의 전성기였던 1970년대에 이르러 전교생 4,000명이 넘는 강원도 내 최대 규모의 학교로 성장했다.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삼척시는 발전했다.

4-2탄광촌이 만들어낸 삼척시의 문화

12)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탄광이라는 위험하고 특수한 노동 환경 속에서 탄광촌 사람들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탄광촌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과 집단 문화는 그들의 삶의 터전인 사택에서 시작되었다.



그림6:장미사택

출처:MTN뉴스

1970년 도계읍에 세워진 장미사택은 1동의 긴 건물을 5가구가 벽을 맞대고 나누어 쓰는 구조였다. 이러한 건물의 구조는 이웃을 타인이 아닌 가족으로 만들었다. 언제 붕괴 사고가 날지 모르는 '막장'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보내야 했던 가족들은 매일 아침 서로의 안녕을 묻고 무사 귀환을 기도하며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가족이 되었다.

탄광촌의 척박한 환경은 산업화 과정에서 탄광촌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삶을 기록한 '탄광문학'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탄광시는 당시의 시대상을 담아낸 삼척시만의 소중한 문화자산이 되었다.

12) 대한석탄공사, 『석공 50년사』, 2001

13)삼척 탄광문학의 중심에는 1962년부터 1979년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실제로 17년간 근무했던 정일남 시인과 김태수 시인이 있다.

그들은 갯도 안에서 마주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탄광시로 기록하며 탄광문학의 지평을 넓혔다. 탄광촌 사람들에게 ‘막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과 죽음이 찰나의 순간에 교차하는 생존의 공간이었다.

줄 초상난 광부의 상여를 꾸미는데도 이끌났다
밤새워 다섯 초상집 오가다 보면 새벽이 왔다
젊은 미망인 된 새댁들봄바람 따라 기차 타고 어디로 떠났던가

-정일남, <过去>¹⁴⁾

15)위 시는 석탄 한 덩이를 길어 올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목숨이 희생되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준다. 동료를 떠나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현실과 홀로 남겨진 가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슬픔은 당시 탄광촌 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였다.

정일남 시인이 막장 안의 사투를 그렸다면, 김태수 시인은 삼척시 도계읍의 사택 마을을 배경으로 광부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겪어야 했던 긴장과 연대의 서사를 탄광시로 나타냈다. 그의 대표작 <구동사택 · 1969>는 사택 주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있다.

바람에 날려가는 풀씨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입쟁이 시작되고, 나는 사이렌 소리에 꿈이 부서지는 밤을 자주 만났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속옷에 부적을 넣어두고도 주말이면 산당(山堂)에서 밤을 지냈고, 옆집 곰보아저씨는 출근 때마다 새 아침을 향해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밤새 안녕, 학수 아빠는 죽탄에 깔려죽고-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
새벽새 안녕, 철이 삼촌은 가스폭발로 죽고-우리는 산업역군 보람에 산다
낮새 안녕, 미자아빠는 광차에 다리가 잘리고 색상이 다른 아픔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같은 색의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구동사택.

아이들은 만가(挽歌)와 곡소리를 동요처럼 불렀고 어른들은 소주로 불감증을 씻곤 했다.

13) 디지털 삼척 문화대전(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접속(2026.06.01.)

14) 정일남. 어느 坑속에서. 서울: 혜진서관, 1985.

15) 정연수. 2004. 탄광시에 나타난 탄광촌 사람에 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vol.13, 214-236

가끔씩 월남전 참전 상이용사의 갈구리손과, 데모하다 잡혀갔다 온 영미삼촌의
초점 잃은 눈동자가 기웃거리고 명절이면 공장으로 떠났던
누나 형들의 파리한 웃음도 눈에 띄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날마다 새벽종이 울리고
제야의 종소리가 진눈깨비로 흘러내릴 때까지 우리들의 희망은 캄캄한 빛이 되
어 막장벽을 파헤쳤지만 꿈보아저씨의 종이비행기는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왔다.

-김태수, 「구동사택·1969」 전문16)

17)시에서 반복되는 "밤새, 새벽새, 낮새 안녕"은 탄광의 3교대(갑·을·병방) 교대 근무
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탄광 사고에 늘 긴장해야 했던 사택
촌의 긴장감을 드러내며 사이렌 소리에 잠을 설치고, 남편의 속옷에 부적을 넣으며
산당(山堂)에서 밤을 지새우는 아내의 모습은 광부 가족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불안
을 보여준다.

죽음이 일상화되어 아이들이 만가(挽歌)를 동요처럼 부르고 어른들은 소주로 감각을
마비시키는 황폐한 현실 속에서도, 시인은 중요한 공동체적 가치를 포착한다.

저마다 경제적 기반을 잃고 탄광촌으로 흘러들어와 18)"색상이 다른 아픔"으로 만났던
이들은, 결국 탄광 사고라는 절망적 공유를 통해 "같은 색의 눈물"을 흘리는 긴밀한
운명공동체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캄캄한 빛에 의지해 막장벽을 파헤치는 노동자들의
희망은 비록 제자리로 돌아오는 "종이비행기"처럼 막장을 벗어날 수 없는 삶에 좌절되
기도 하였지만, 이들이 나눈 끈끈한 연대감은 삼척 탄광촌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이렇듯 삼척의 탄광문학은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냈던 탄광촌 사람들의 역사를 생
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칠흑 같은 막장의 어둠 속에서도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탄광촌 사람들의
강인한 의지를 증명한다. 과거 탄광촌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은 이러한 문학적 기록을
통해 근대화를 거친 삼척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되었다

또한 고된 노동과 척박한 환경은 삼척만의 새로운 식문화도 탄생시켰다. 현재 삼척을
대표하는 음식중 하나인 물닭갈비가 그 대표적인 예다.

16) 지역N문화 탄광촌의 사택과 시 「구동사택·1969」(접속 2026.06.01.)

17) 정연수. 2004. 탄광시에 나타난 탄광촌 사람에 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vol.13, 214-236

18) 지역N문화 탄광촌의 사택과 시 「구동사택·1969」(접속 2026.06.01.)



그림7:물담갈비

출처:삼척 청춘물담갈비 홈페이지

물담갈비는 갯도 안에서 먼지를 잔뜩 마신 광부들이 칼칼한 국물로 답답한 목을 씻어 내고 부족한 고기 양을 대신해 육수를 넉넉히 붓고 채소를 산더미처럼 넣어 여럿이 배불리 나누어 먹은 것에서 유래했다. 이는 탄광촌 사람들에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육체적 피로를 달래고 내일 다시 막장으로 들어갈 힘을 주는 생존의 음식이었다.

4-3 탄광 산업의 쇠퇴와 삼척시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조례 이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탄광 산업의 화려한 시대는 저물었다. 거대했던 탄광 산업 현장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과거 사택 마을과 산업 시설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었다. 삼척 탄광촌의 양지사택은 리모델링을 거쳐 게스트하우스, 탄광 테마 갤러리, 카페테리아 등으로 탈바꿈하며 과거 삼척시 탄광산업의 현장을 체험하는 문화 공간이 되었다.



그림8:장미사택 부지에 세워지는 공공임대주택 계획안

출처:MTN뉴스

19)반면 노후화가 심해 복원이 어려운 사택 부지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2025년 마지막 남은 국영 광업소인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폐광 수순을 밟게 되면서 앞서 언급했던 장미사택 역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철거가 결정되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19) MTN뉴스 막장-희.로(路.)애.락④ 광부의 집(접속 2026.06.11.)

현재 삼척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진행형인 경제적 위기다. 마지막 남은 민간 탄광인 경동 상덕광업소는 본래 2030년 폐광 예정이었으나 현 정부의 이른 폐광 논의와 지원 중단 소식이 전해지며 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20)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2025년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 규모는 약 9,800억 원, 실업은 299명으로 추산된다. 만약 경동 상덕광업소까지 조기 폐광될 경우, 그 피해액은 5조 6,000억 원으로 치솟고 실업자는 1,685명으로 급증한다. 이는 도계읍 전체 인구(약 8,925명)의 약 18%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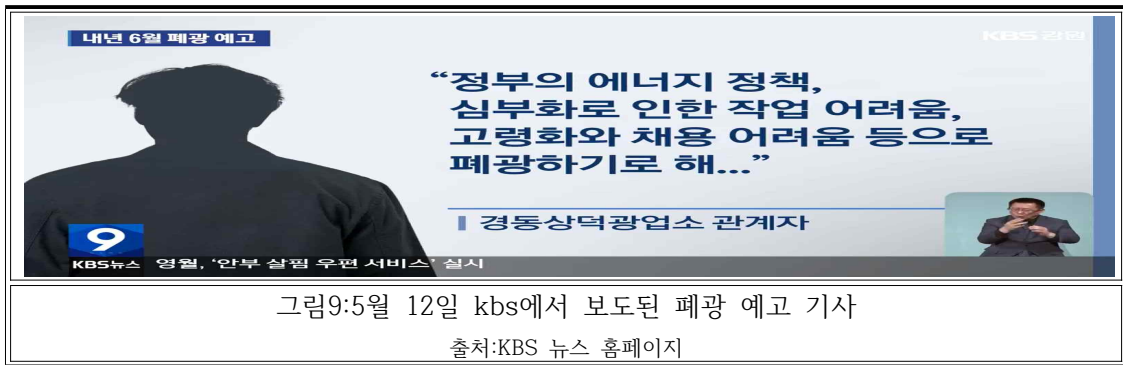


그림9:5월 12일 kbs에서 보도된 폐광 예고 기사
출처:KBS 뉴스 홈페이지

결국 정부의 조기 폐광 논의는 우려했던 현실이 되었다. 21)지난 5월12일 KBS가 보도한 경동 상덕광업소의 폐광 예고 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심부화 현상으로 인한 작업의 어려움, 그리고 노동자 고령화와 신규 채용의 한계 등이 겹치면서 결국 내년 6월 폐광이 확정되었다는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렸다.

폐광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 또한 매우 크다. 해당 기사에 실린 도계읍의 지역 상인의 인터뷰에는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있다.

“많이 걱정되죠. 우리 그거 없으면 인員도 빠져나가고 도계 죽는다고 봐야죠. 카페 하는데 아무래도 문 닫으면 타격이 많이 가죠.” -도계읍 지역상인-

이러한 상인의 목소리는 탄광이 사라진 도계 지역을 당장 지탱해 줄 대체 산업이 마땅치 않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십 년간 탄광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던 만큼, 대안이 없는 조기 폐광이 주민들의 생존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현재 도계 지역에 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 대체 산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시점과 폐광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기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수조 원대의 피해와 대규모 실업을 막을 구체적인 대책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현재 삼척시는 가장 큰 위기에 처해져있다.

20) [강원일보]李대통령 ‘마지막탄광(삼척경동)지원중단 서두르라’ 파장(접속 2026.05.06)

21) 마지막 탄광 ‘경동 상덕광업소’ 내년 폐광 예고...“앞날 막막”(접속 2026.06.10.)

Ⅲ. 결론

본 보고서는 삼척의 전통을 상징하는 국보 죽서루와 근현대 발전의 상징인 도계 탄광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삼척이라는 도시와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을 탐구하였다. 단순히 지역의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새겨진 역사적 배경과 주민들의 삶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과정은 삼척이라는 지역과 더욱 가까워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죽서루에 대한 탐구는 삼척이 품어온 시간과 그 시간을 채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주하는 과정이었다. 연구를 통해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한 장소에 남겨진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였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죽서루를 거쳐 간 시인 묵객들이 남긴 시문과 기록들은 단순히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삼척의 역사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어 있었다. 죽서루라는 하나의 공간에 층층이 쌓인 이 기록들은 오늘날 삼척의 역사가 되었고 삼척의 문화인 국가유산 야행이라는 축제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려는 지역 사회의 염원과 노력이 모여 죽서루의 국보 승격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계 탄광촌과 그곳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삼척이라는 도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좁은 사택 골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가족을 짊어지기 위해 막장의 어둠으로 향했던 광부들의 이야기는 필자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특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느꼈던 ²²⁾‘색상이 다른 아픔’을 ‘같은 색의 눈물’로 승화시킨 탄광문학의 절절한 서사와, 갯도 안의 먼지를 씻어내며 서로를 배불리 먹이고 위로했던 물닭갈비의 유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피어난 탄광촌의 도시 삼척만의 소중한 문화 자산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러나 석탄 산업의 황금기를 뒤로하고 현재 폐광과 인구 소멸로 인해 절박한 위기에 직면한 도계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나의 이야기처럼 체감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한 삼척과의 영혼맺기는 이 지역을 더 이상 낯선 타지가 아닌 함께 아파하고 응원하고 싶은 애정을 가진 지역으로 만들어 주었다.

삼척시가 현재 마주한 폐광 이후의 경제적 공백과 소멸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도계 탄광촌처럼 삼척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다시금 사람들이 북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죽서루가 수백 년간 자리를 지키며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았듯이, 삼척의 근현대 유산과 새롭게 개발되는 산업들이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되어 지역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염원하며 본 보고서를 마친다.

²²⁾ 지역N문화 탄광촌의 사택과 시 「구동사택·1969」(접속 2026.06.01.)

참고문헌

죽서루

삼척시청 홈페이지 죽서루 안내 (접속 2026.05.02)

<https://www.samcheok.go.kr/tour/01456/01463/01477.web>

한국고전번역원 [고전기행] 우뚝 솟은 절벽, 백 척의 누각 - 관동제일루 삼척 죽서루 (접속 2026.05.02.) <https://blog.naver.com/itkcblog/223537362244>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접속 2026.05.02)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snl=N&ccbaAsno=0003430000000&ccbaCpno=1115103430000

디지털삼척문화대전(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접속 2026.05.02)

<https://www.grandculture.net/samcheok/search/GC06700415?keyword=%EC%A3%BD%EC%84%9C%EB%A3%A8&page=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미수기연 책판 (접속 2026.05.0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0226&cid=46669&categoryId=46669>

삼척관광문화재단 홈페이지, [삼척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 소개] (접속 2026.06.11.)

<https://www.stcf.or.kr/01296/01371/01422.web>

탄광촌

대한석탄공사 홈페이지, 「광업소 소개 (장성·도계광업소)」 (접속 2026.05.04)

https://www.kocoal.or.kr/newpage/newpage.php?f_id=intro_do

[굽이굽이 별천지] ㉔ 철길과 흥망성쇠 함께 한 탄광촌 삼척 도계(도계 탄광촌 관련 기사) (접속 2026.05.06.) <https://v.daum.net/v/20240106080039189>

[강원일보]李대통령 '마지막탄광(삼척경동)지원중단 서두르라' 파장(접속 2026.05.06)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081410333314022>

대한석탄공사, 『석공 50년사』, 2001

디지털 삼척 문화대전(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접속(2026.06.01.)

<https://www.grandculture.net/samcheok/dir/GC06701208>

정일남. 어느 坑속에서. 서울: 혜진서관, 1985.

정연수. 2004. 탄광시에 나타난 탄광촌 사람에 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vol.13, 214-236

지역N문화 탄광촌의 사택과 시 「구동사택·1969」(접속 2026.06.01.)

<https://ncms.nculture.org/coalmine/story/3836>

MTN뉴스 막장-희.로(路.)애.락④ 광부의 집(접속 2026.06.10.)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92612391448719>

KBS뉴스 마지막탄광'경동 상덕광업소내년 폐광 예고...'“앞날 막막”(접속 2026.06.1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59177&ref=A>